

[보도자료] 광주 지역 중소기업, 쿠팡으로 온라인 판로 개척

2020. 10. 5.



- 쿠팡-광주시 '힘내요 대한민국' 2차 기획전 진행
- 올해 상반기 광주 지역 영세 소상공인 매출 전년대비 47% 성장
- 연말까지 400여 종 광주 지역 중소기업인 상품 최대 60% 할인

2020. 10. 05. 서울 – 쿠팡과 광주시가 광주 지역 중소기업인 온라인 판로 개척에 나선다. 쿠팡은 '힘내요 대한민국' 2차 기획전을 열고, 광주 지역 중소기업인 입점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 4월부터 '힘내요 대한민국' 기획전을 열고 품질이 우수한 지역 중소기업인의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해왔다.

올해 1분기

코로나19 쇼크로 실물경제가 타격을 입기 시작한 이래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편의점, 홈쇼핑 영역에서 매출이 감소하거나 유지했지만, 인터넷 쇼핑 부문은 언택트 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약 15%에 달하는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쿠팡과 함께한 광주 지역 영세 소상공인은 올해 상반기 매출이 2019년 상반기 대비 47% 성장해 전체 인터넷 쇼핑 부문 평균치보다 3배 더 성장했다.

쿠팡과 광주시는 이 성과에 힘입어 연말까지 '힘내요 대한민국' 2차 기획전을 이어간다. 이번 2차 기획전에서 쿠팡은 총 1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광주 지역 중소기업인 상품 마케팅, 광고 활동을 지원한다. 광주시도 예산 1억원을 투입해 고객에게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고객은 이번 기획전에서 광주 지역 상품 400여 종을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이밖에 쿠팡은 로켓제휴 서비스, 상품광고 서비스, 빅데이터 기반 코칭 서비스 등을 제공해 지역 중소기업인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윤혜영 쿠팡 리테일 부사장은 “쿠팡의 전국 물류네트워크는 광주 지역 중소기업인들이 비즈니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광주 지역 중소기업인들이 쿠팡이 제공하는 고객만족에 최적화된 판매 환경에서 성장하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